

한 루 더 뛰고 훔치고... 훔먼지 잘 날 없는 황운호



“나에게는 지금이 정규시즌”
연습경기마다 실전같은 주루
‘훔범벅 유니폼’ 트레이드마크

‘야구 잘되라’ 간절함 담아
캠프 유일 장발머리 고수
도기·장발 등 ‘별명 부자’

스윙 궤도 등 타격자세 전면 수정
눈에 띄는 플레이 코치진도 주목

브룩스, 선발 등판
62개 투구 5피안타 1실점 호투

KIA 타이거즈 내야수 황운호의 시즌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 플로리다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KIA는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시즌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본 시즌에 들어간 선수도 있다. 내야수 황운호는 “나는 지금이 시즌이다”며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타격을 하는 그는 그라운드에 나가면 일단 뛰고 본다. 적극적인 주루로 베이스를 훔치고 한 루라도 더 뛰기 위해서 큰 폭의 리드를 하면서 상대를 주시한다. 실전처럼 뛰다 보니 ‘더러운 유니폼’이 황운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황운호는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솔직히 지금이 시즌이다. 주전이 확정된 선배들은 개막에 맞춰 몸을 만들지만 나는 지금이 시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눈에 들어야지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다.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서 기회를 잡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눈에 띄는 플레이에 윌리엄스 감독도 황운호를 주목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과 워드마이어 수석코치가 부르는 황운호의 애칭은 ‘도기(Doggy)’다. 강아지를 닮은 외모 때문에 얻은 별명이지만 그라운드에서의 거침없는 질주까지 더해 ‘도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다.

황운호의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는 ‘장발’이다. 황운호는 캠프에서 긴 머리를 고수하고 있다. 상대 선수들이 “스타일이 멋지다”며 먼저 인사를 건넨 정도로 주목 받는 장발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황운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

황운호는 “머리가 짧았을 때 야구를 잘한 기억이 없다. 불안해서 못 자른다. 나도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엄마도 머리 좀 자르라고 하셨는데 야구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가 이제 말씀 안 하신다. 사람이 간절하니가 이렇게 되더라”며 웃었다.

그는 지난 시즌 막바지의 강렬했던 기억을 안고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수비에서 역할을 기대했던 황운호는 지난 시즌 후반기 39경기에서 103타수 36안타 타율 0.350, 9타점을 기록했다. 4안타 경기도 펼쳤고, 프로 데뷔 홈런도 터트렸다. 모든 걸 바꾸면서 변신에 성공했다.

강렬했던 기억, 감각 그대로 올 시즌에도 황운호의 ‘반전 타격’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다.

황운호는 “스윙 궤도, 타이밍, 스탠스, 방향이 길어, 방향이 위치 다 바꿨다. 지난해 후반기 때 시도한 그대로 연습하고 시합하고 있다”며 “믿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올 시즌 각오를 다졌다.

황운호는 5일 플로리다 독립리그 연합팀과의 연습 경기에서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외국인 선수 브룩스는 이날 선발로 등판해 62개의 공을 던지며 시즌 준비에 속도를 냈다. 브룩스는 17명의 타자를 상대로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wool@kwangju.co.kr



김광현, 눈도장 ‘황~’

MLB닷컴, 세인트루이스 스프링 캠프 인상적 선수 꼽아

구슬땀을 흘리는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32)이 팀 내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로 꼽혔다. MLB닷컴은 5일(한국시간) “팀 내 주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광현은 캠프 초반부터 눈에 띄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김광현은 두 차례 시범경기 등판에서 3이닝 동안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탈삼진 5개를 뽑아내는 등 든든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는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만, 핵심 불펜 혹은 마무리 투수로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김광현의 활약에 동료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불펜 투수 존 브레비아는 “김광현이 어떤 선수인지 모르고 그의 투구를 지켜봤다”며 “엄청나더라. 그의 공은 정말 좋아 보였다. 원하는 곳에 공을 날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SK 와이번스의 허락을 받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광현은 일찌감치 몸상태를 끌어올렸다.

스프링캠프에서 전력투구로 코치진과 동료들에게 어필한 김광현은 실전 경기에서도 흠잡을 곳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는 최근 가벼운 사타구니 통증으로 등판 일정이 미뤄졌지만, 문제없이 불펜 피칭을 소화하며 다시 일어났다.

김광현은 6일 오전 3시 5분 미국 플로리다 주 주피터 로저드 스타디움에서 뉴욕 메츠를 상대로 벌이는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한편, 이 매체는 김광현 외에도 외야수 딜런 칸슨, 선발 경쟁을 펼치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와 다니얼 폰스터리언, 유격수 폴 데용을 스프링캠프에서 인상적인 선수로 꼽았다.

/연합뉴스

‘평균연령 48세’ K리그, 젊은 감독 시대

프로축구연맹 22개 구단 사령탑 소개... 경남 설기현·충남 박동현 41세 최연소

만 48세, 9명의 새로운 사령탑이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0시즌을 이끌 22개 구단 사령탑의 면면을 소개했다.

22명의 감독 평균 나이는 만 48세. K리그1 12개 팀 감독 평균 나이가 48.75세, K리그2 감독 10명의 평균 나이가 47.3세다.

최고령은 56세의 FC안양 김형열 감독이다. 41세 동갑내기 경남FC 설기현 감독과 충남아산FC의 박동혁 감독은 최연소 감독이다.

광주FC의 승격 시즌을 이끌게 된 박진섭 감독은 43세, 대항 포리표를 땀 전남드래곤즈의 전경준 감독이 47세다.

전북현대의 모라이스 감독은 22개 구단 중 유일한 외국인 감독이다. 전북 역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이기도 한 모라이스 감독은 지난해 부임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올 시즌 리그 연패에 도전한다.

올 시즌 9개 팀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전력을 꾸렸

다.

K리그1에서는 성남FC 김남일 감독을 포함해 인천 유나이티드 임완섭 감독, 대구FC 이병근 감독대행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다.

K리그2에서는 전체 구단의 절반이 넘는 6개 구단이 새 감독을 맞았다.

경남 설기현 감독, 대전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 서울이랜드 정정용 감독, 안산그리너스 김길식 감독, 제주 유나이티드 남기일 감독, 수원FC 김도균 감독이 그 주인공.

김남일, 설기현, 정정용, 김길식, 김도균 감독은 올 시즌 프로 감독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가장 경험이 많은 감독은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다.

그는 처음 감독대행을 맡았던 2011시즌부터 2016시즌 중반 그리고 서울로 복귀한 2018시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9시즌을 보내고 있다.

리그 우승, AFC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FA컵 우승 등을 이끌며 K리그 베테랑 감독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용수 감독이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올 시즌 사제지간의 재회도 흥미롭다.

강원FC 김병수 감독은 올 시즌을 위해 영남대 시절 제자인 김승대, 임채민, 이병욱, 서민우 등 4명을 불러들였다. 지난해 U-20 월드컵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정정용 감독도 ‘김학범호의 캡틴’인 이상민과 김태현 등 연령별 대표팀에서 가르쳤던 제자들과 다시 호흡을 맞춘다.

제주에 동지들 투 남기일 감독은 광주에서 한솔밥을 먹었던 정조국과 윤보상을, 성남에서 제자였던 공민현, 박원재, 김재봉, 이은범과 함께 새 전력을 구성했다. 또 두 팀에서 모두 함께했던 조성준도 남기일 사단에 재합류했다.

설기현 감독도 성공관대 제자 김호수, 김영환, 김규표 등을 나란히 영입하며 프로 데뷔 시즌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방에서 보는 한국 야구史

KBO, 디지털야구박물관 개관... 시즌별 기록·레전드 인터뷰 등 풍성

KBO가 디지털야구박물관을 개관했다. 디지털야구박물관(www.koreabaseballmuseum.com)에는 KBO 아카이브센터에 보관 중인 2만여 점의 기록물과 역사적 자료들이 담겼다.

한국야구 기록물과 사료들이 시대별, 형태별, 출처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야구팬들은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역대 정규시즌과 올스타전 홍보 영상, 야구 원로들이 전하는 ‘야구를 말하다’ 인터뷰 등 각종 디지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됐다.

또한 디지털야구박물관에서는 1982년부터 2019년까지 KBO 리그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표로 확인할 수 있다.

숫자의 비밀, 기록할 순간, 영구결번, 신생구단 탄생

기 등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콘텐츠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 야구팬들이 직접 야구 소장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됐고 기증자 명단, 기증 절차와 기증 신청란을 만들어 기증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야구팬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했다.

디지털야구박물관은 KB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하다.

한편 KBO는 디지털야구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공식 인스타그램(@kbo.official)에서 3월 한 달간 야구팬들의 진귀한 소장품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